

국제화 추진하는 台灣석유산업

최근 台灣은 국영석유회사인 CPC(Chinese Petroleum Corp.)와 子會社인 海外石油投資會社(OPIC: Overseas Petroleum & Investment Corp.)를 主軸으로 석유산업의 國際化를 서두르고 있다. 이에는 台灣의 政治自由化가 주요배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中國본토의 정치사태가 촉진제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台灣은 현재 中東에 편중된 원유輸入先의 다변화를 통한 석유자주공급력향상에 주력하고있다. 또한 1990년대를 겨냥한 精製設備高度化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예상외의 제품수요급증(연간 23%)으로 싱가포르 등 해외정제산업투자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신규해외투자를 통하여 대만은 석유산업 국제화와 완전국영화에 걸맞는 CPC의 조직개편이 예상된다.

국내소요석유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台灣은 原油도입선다변화와 탐사·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CPC원유수입의 中東의존도가 1974년의 90%에서 1988년에는 75%로 감소되었다. 원유공급선도 中東 7개국, 기타 9개국 등 모두 16개국으로 다변화되었다. 이 중 가봉, 호주, 말레이시아, 에콰도르는 OPIC이 유전탐사 및 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CPC Annual Rep. 1987). OPIC의 연간 해외유전개발투자비는 약 100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현재 참여중인 에콰도르의 陸上油田개발프로젝트(運營權者: CONOCO社)에의 지분율은 20%를 상회하고 있다. 이 지역의 확인매장량은 2억배럴, 생산개시는 1991년, 최대생산량은 3만b/d로 기대되고 있다. OPIC은 2000년까지 25~30만b/d의 석유개발수입목표를 세우고 있다. 지금까지 OPIC이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말레이시아 사라와크의 육상 및 해상유전개발로서 각각 70%, 3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최근 들어 台灣의 重油(Resid. Fuel)와 휘발유수요의

급증(전년대비 각각 31.5%, 21% 증가)이 괄목할 만하다. 이는 제조업의 급신장과 자동차대수의 급증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국내석유제품수요의 급증에 따라 CPC는 금년초부터 해외상사(쿠웨이트·이토社)의 수탁정제사업을 종료하는 동시에 逆으로 싱가포르에서의 수탁정제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1990년대에 이르러 부족이 예상되는 정제능력 60만b/d를 확대하는 한가지 방안으로 해외정제시설매입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의 공해방지노력(2000년까지 330억달러 공해투자비 예상)에 부응, CPC는 정제설비에 대한 濕式脫黃裝置부착과 함께 低鉛 또는 無鉛휘발유생산시설확충에도 주력하고 있다.

한편 1990년 개시예정인 인도네시아 바다크 LNG수입계획은 인근산지로부터 값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이점때문에 적극 추진되고 있다. CPC는 2000년까지 연 450만톤의 LNG를 수입할 계획이다. 有望공급선으로는 알라스카, 캐나다, 호주, 말레이시아, 카타르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發電부문에서의 LNG필요량은 1990년 50만톤/년에서 2000년에 이르러 약 300만톤/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台灣의 국내천연가스생산량은 작년에 1.13M³(110MMCF/D)를 기록하였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동향)

台灣의 석유제품 수요증가 추이

(단위: 천B/D)

	1988	1987	1986	88/87(%)
주요제품	338.0	227.0	254.1	+23.0
휘발유	73.0	60.4	52.2	+20.9
제트유	14.7	14.7	12.6	-
경유	54.7	50.8	46.5	+7.7
중유	191.5	145.6	142.8	+31.5

<註> 나프타, LPG, 기타 제품은 제외